법무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. 5. 4.(목)

한겨레, 「예배당도 급습.. 한동훈 법무부 '이주노동자 단속' 인권침해 속출」 기사 내용 중에,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○ 위 기사에서 '**네팔인 ㅌ씨**가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, 밤새 울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튿날에야 병원에 데려갔으며, 의료진의 수술 필요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강제출국되었고, 비용도 함께 붙잡힌 동료에게 청구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'고 언급되고 있으나,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

- 즉, **네팔인 ㅌ씨**는 ▲2016. 11. 비전문취업(E-9)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**약 4년 6개월 간 불법체류** 중인 사람으로서, ▲2023. 3. 8. 충남 아산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취업 중 대전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다른 외국인 12명과 함께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되었으며, ▲대전출입국·외국인사무소는 **단속 다음날 통증을 호소**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**즉시 병원으로 후송**한 것입니다.

- ▲진료비용은 '**보호외국인 자비 부담 원칙**'(외국인보호규칙 제7조 제3항)에 따라 함께 단속된 같은 국적 동료로부터 돈을 빌려 **본인이 직접 지급**하였으며, ▲(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것이 아니라) **본국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본인의 의사**에 따라 신속히 출국한 것입니다.

○ 또한, 위 기사에서 언급된 '**인천 모 클럽에서의 문화공연 중 불법체류자 단속**으로 **외교문제로 비화**될 우려'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.

- 즉, ▲위 단속 장소는 '**유흥주점**'으로 **영업허가**를 받은 곳으로서 유흥주점에서 **새벽 시간에 1회성 노래**를 부르는 것을 통상적인 문화공연으로 보기 어렵고, ▲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며, ▲**외교당국 간에도 단속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**.

○ 법무부는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인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단속 등 **엄정한 체류질서 확립**에 힘쓰고 있으며, 단속 과정에서 **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**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분상의 약점으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**외국인력 도입 확대 방안**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	박재완 (02-2110-4075)
		담당자	사무관	전동균 (02-2110-408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